

◇금강대학교 강의동전경

뒤에는 푸르른 숲이 우거진 계룡산 자락이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고 앞쪽으로 전망이 탁 트인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9 금강대학교. 3만5천평 잘 꾸여진 대지에 연건평 3천7백여평 강의동을 비롯 건물들이 자리잡고 있다. 학교 본부와 강의실, 교수연구실이 있는 강의동은 건물이 완공돼 내부 집기가 채워지고 있다. 오는 9월 완공되는 기숙사 2동은 한창 마무리 공사중이다.

연면적 3,700여평의 지하 1층 지상 5층 강의동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있었다. 계단식 세미나실을 비롯 어느 강의실에서든 인터넷을 통한 화상강의가 가능하

천태종립 금강대 개교 앞서 현장설명회 “최첨단시설로 전문인 양성”

도록 했고 도서관과 기숙사, 운동장에서도 무선 랜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위성 수신과 방송제작도 가능한 통합방송실은 기존의 유선대학에서조차 부러워할 만한 첨단 디지털 장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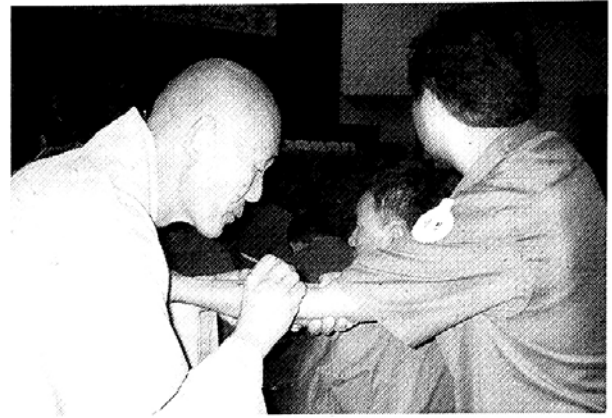
은 국제적인 전문인을 키우기위한 면학시설"이라고 덧붙였다. 금강대는 학생들의 교육과 문화향유, 편의를 위한 시설을 곳곳에 배려했다. 건물 옥상에는 휴식공간과 소공연장이 마련돼 학생들이 연극, 음

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안목과 감각을 익히도록 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천태종은 6월 22일 학교건물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금강불교학원은 6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에 금강대학교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학설립 절차과정을 거쳐 10월인가를 받게 되면 내년 3월 정식 개교. 불교문화학부(불교학 전공), 통역학부(영어학 전공, 일어학 전공, 중국어학 전공), 사회과학부(사회복지학 전공) 등 5개 전공분야 총 100명(전공별 20명씩)의 학생을 선발한다.

금강대는 입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산 = 이경숙 기자



◇홍천 금융사 주지 삼현스님이 춘천교도소의 한 재소자에게 연비하고 있다.

춘천교도소 재소자 수계법회

성민스님 “모범수 30명에 매월 영치금 지원”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은 19일 춘천교도소에서 재소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홍천 금융사 주지 삼현스님과 불자교정인연합회 오희창 회장, 포교사단 양성홍 수석부단장 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포교원 연구실장 정호스님은 계사를 통해 “수계의식은 불교신자가 되는 통과의례이며, 계를 지켜 나감으로써 건전한 사회 생활과 수행을 하는 참다운 불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92명의 재소자가 참석한 이

날 수계법회에 이어 대한불자가수회 김활선 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가수들과 한국 외국어대학교 클래식 기타 동아리 학생들이 2시간 동안 축하공연을 펼쳐 재소자들의 얼굴에 모처럼 환한 미소가 담겼다. 한편 홍천 백락사 주지 성민스님은 모범수 30명에게 매월 만원씩 영치금 지원을 약속했다. 춘천교도소 한철호 소장은 김활선 불자가수회 회장(포교사단 교도소1팀장)과 조철주 포교사(교도소5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재경 기자

템플스테이 포교효과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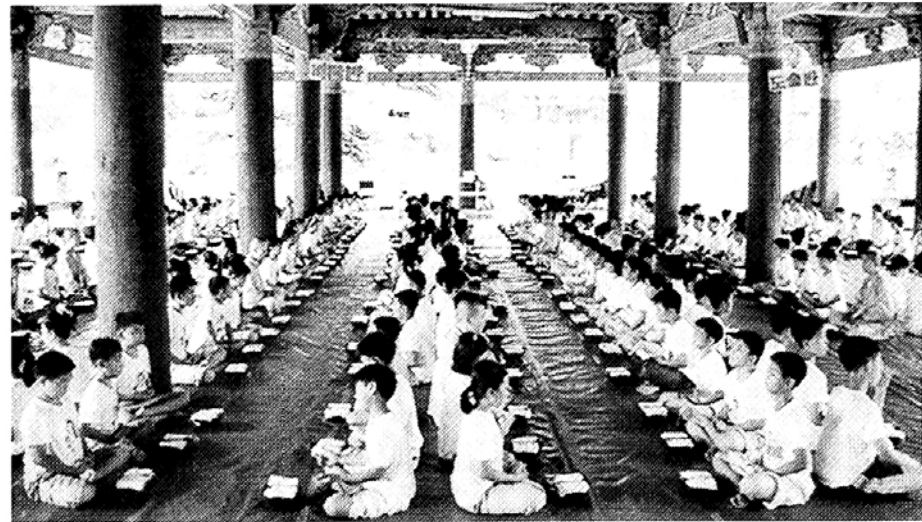
종교분포 무교 33 가톨릭 25 개신교18% 차지
참가이유 ‘한국불교 체험’ 45 ‘호기심’ 35%

조계종, 사업보고서 발간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한국전통불교문화체험 사업에 참가한 855명의 외국인 참가자(해외거주자는 547명)의 종교분포는 무교(33%), 가톨릭(25%), 개신교(18%), 불교(12%), 기타(7%), 이슬람(3%) 등으로 나타났다. 비불자들에게 대한 포교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최근 발간한 <월드컵 템플스테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템플스테이 참가이유가 한국불교 체험(45.2%), 불교에 대한 호기심(31.9%), 교육적 가치(4.4%), 주변의 권유(4.4%), 자연경관(2.2%), 저렴한 숙박

비(15%) 등으로 조사돼 한국불교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또 참가자들은 교통신(91.3%), 음식 맛(70.6%), 숙소(87.5%) 및 샤워(79%), 화장실(95.5%) 시설, 의사소통(77.4%) 등에 만족한다는 뜻을 표시했다. 재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76%가, 타인 추천 여부 문항에는 93%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외국인들은 등산하기, 다도, 예불, 발우공양, 참선 등의 순으로 프로그램을 선호했으며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한국불교에 대한 우호적인 느낌을 갖고 돌아간 것으로 평가됐다.

김재경 기자



◇청도 운문사 어린이 불교학교에 참가한 500여 세속 불자들이 ‘부처님 되세요’라는 주제에 화답하듯 의젓하게 좌선을 배 사신제공=운문사

방글라데시 사찰전립 지원

한·방글라 후원회

한 방글라데시후원회(회장 고연희)는 20일 서울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 방글라데시에 사찰전립을 후원하기 위해 영어로 진행되는 ‘불교미술 강의’와 옷 바자회를 마련했다. 영국 캔사스대학 박사과정의 무이 가 모리슨씨와 국제포교사 이수정씨가 한국의 평화를 중심으로 한국불교 미술에 대해 강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방글라데시 옷을 염가

에 판매하는 바자회도 마련했다. 후원회 회장인 고연희 조계종 국제포교사는 “이번 행사가 이슬람의 탄압으로 고통받는 방글라데시 불자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랜 불교국가였던 방글라데시는 지난 88년 회교국가로 공식 선포된 이후 전인구의 85% 이상이 무슬림화 되었고, 1%가 안되는 불교도 백만여 명이 정부의 암묵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 김재경 기자

청도 운문사

어린이 여름학교 열어

경북 청도 운문사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제 24회 어린이 여름불교학교(교장·운문승가대학장 명성스님)를 학인스님들의 기획과 운영으로 성황리에 개최했다. 500여명이 참가한 이번 불교학교는 ‘부처님 되세요’라는 주제로 부처님 일대기를 전하는데 주력했으며, 화랑일에는 고학년에게 어린이 5계를 수여해 어린 불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었다. 김재경 기자

목탁소리

천 미 회 (부산 주재기자)

피악별 아래 내원사 대종스님들이 부산 시내에서 삼보일배 정진한 다음날인 25일, 고숙철도공단 채영석 이사장과 실무자들은 부산시청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런데 내원사 대종스님들의 머리에 입은 화상의 물집이 채 아물지도 전, 긴급하게 기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고숙철공단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 이날 기자간담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기다리던 지울스님과 불교계 기자들의 참석은 출입기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제되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불청객’의 등장으로 속내를 드러내지 못한 공단 관계자들은 예정보다 30분 앞당겨 간담회를 서둘러 끝내고 급히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고, 여기서도 ‘고숙철공단의 입장만 듣고 가겠다’는 불교계 기자와 지울스님의 참석을 막았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울스님과 불

부산시·고숙철공단 속내

교계 기자를 막아선 사람이 공단 관계자나 기자단이 아닌 부산시청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이다. 한바탕 몸싸움과 연쟁이 오간 이날 그동안 부산시의 고숙철공단이 한결같이 보여왔던 노선 변경 불가와 조기완공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을 뿐이다. 그동안 공단은 천성산 관동 구간에 대해 내원사와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기로 해놓고도, 일방적으로 기관을 정해 조사를 강행하려다 내원사와 산내 임자의 강력 반발로 중지한 상태다. 또한 부산시는 삼보일배 정진이 있었던 당일, 부산시청에서 고숙철 조기완공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회의를 열어 불의를 빚기도 했다. 스님들이 삼보일배 내내 흘렸던 땀과 눈물은 물론, 불교계와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고숙철과 부산시의 불교계를 무시한 이같은 막무가내식 처사를 불자와 시민들은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 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사바타 센터 전화주선은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월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021396-2736 · HP 0101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 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주) 한국자연과학 www.opiland.co.kr

최면 수련생 모집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최면-전생을 통하여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십시오.
전생(前生)의 문을 열면 당신의 부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

- 1 타인최면유도
- 2 최면으로 하는 제령(際靈)
- 3 원격최면
- 4 전생퇴행최면
- 5 파동(波動)요법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면-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 강의시간 : 주 3시간, 3개월 과정
◆ 문의처 : 051)806-8500, 051)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법운 선생님의 약력

- 2001년 SBS 오기심전국 출연
- 2002년 KBS 'VJ 특공대' 출연
- 동래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 '97년 PSB 이찬 특종뉴스 출연 (운명학)
- '98년 PSB 출발새아침 출연 (판상학)
- 대한 초능력학회 회원
- 동방 최면전생 연구소 소장
- 세계아미포 기공협회 회장
- 연 '심경그룹' 교원으로 재직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동방 최면 전생 연구소